

文·朴, 전북서도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

■ 새정치 당권레이스 증반 혼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레이스가 증반전으로 접어들어 가운데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박지원·문재인 후보가 19일 전북지역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정책이나 비전 대결은 실종된 채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흘러가는 양상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두 후보는 전북 순회에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 잇따라 출연, 불꽃 튀는 공중전을 벌였다.

박지원 후보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문 후보는 저와 이인영 후보에게 여의도 정치문화에 젖어 개혁을 잘 못할 거라 비판하면서 왜 본인은 대선 패배 후 많은 사람의 의뢰적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계파 분열은 친노 책임"

문재인 "총선·대선 모두 이겨야"

이인영, 시민·중산층 표심잡기

여의도에 그대로 있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계파정치 분열 등 누가 당을 이끌고 만들었느냐, 전적으로 친노(친노무현)가 만든 것"이라며 "그런 친노의 수장인 문 후보가 당권, 대선 다 가진다면 이야말로 핑 먹고 알 먹고, 집 태워 군불 쬐는 것으로,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문 후보 혼자서 당 이끌고 대선 후보 하는 것은 필패의 길"이라고 쏘아붙였다.

문 후보는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박 후보가 '당권-대권 분리론'을 내세워 "핑 먹고 알 먹으려 한다"고 자신을 비판하는 데 대해 "우리 당은 핑도 먹고 알도 먹어야 한다. 총선도 대선도 이겨야 한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절고롭게 생각할 당 대표도 바로 저"라며 '총선 승리 얼굴'을 거듭 내세웠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익산시와 군산시, 김제시 등에서 열린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김제시 최규성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문 후보는 "우리 당의 정동성은 호남에 있지만 이곳에서 안주했다는 점은 인정하다"며 "제가 당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전북 당원들의 확실한 지

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노와 비노 등 계파 논란은 저를 공격하는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이를 떨쳐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내놓고 인사와 당 운영에서 '친노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정도로 확실한 당평을 해 계파 논란을 불식시키고 지역분권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문 후보는 당권과 대권을 모두 다 가지려는 '핑 먹고 알 먹기'식 정치를 하고 있다"며 "당권을 먹고 대권도 먹어 제2의, 제3의 정동영이 되려고 하느냐"며 문 후보와 최근 탈당한 정동영 전 상임고문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경험 많은 대표가 되어 싸울 때 우머 할 말을 하며 협상할 때 협상할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며 "문 후보 혼자 해서는 패배하며 대선후보들에게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며 분열과 분당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이에 앞서 익산시 전정희 국회의원 사무실과 군산시 김관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지역 간담회에 이인영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박지원 후보는 이날 오후 부안군 김춘진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열리는 고창·부안 합동간담회를 한 뒤 저녁에는 이인영 후보와 함께 전주 MBC가 주최하는 TV토론회에 참석해 표심잡기를 계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왼쪽부터), 유인태, 노웅래 등 '2·8 전당대회 대표선출오더금지' 위한 모임(오금모임) 의원들이 19일 국회 정문관에서 각 지역위원장에게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 오더를 내리는 정치 문화 근절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전대 계파·지역별 줄세우기 그만"

유인태 등 전·현직 의원 13명 '오금모임' 시즌2 결성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지역별 '줄세우기' 문화 청산을 위한 모임인 19일 결성했다.

유인태 의원을 주축으로 모임이 모임의 이름은 '계파와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혁신전대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이른바 '오금(오더금지)모임'으로도 불린다. 앞서 지난 2013년 5·4 전당대회 때 활동한 '오금모임'의 재현이다.

오금모임은 유 의원 외에도 이미경·박병석·강정일·오제세·이상민·김영주·노웅래·장병원·정성호·김관영 의원과 김부겸·김영춘 전

의원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지역위원장이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 이른바 '오더'를 내리는 정치 문화를 근절하자"고 호소했다.

또 "새정치연합의 혁신과 변화는 계파와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대의원 줄세우기 행태'를 뿌리뽑자는 결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대의원의 자발적 선택권을 보장해 2·8 전

대를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많은 (지역)위원장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회견 이후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위원장이 대의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대의원이 지역위원장의 오더를 기다렸다가 시키는 대로 투표를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지난번 오금모임 때부터 지역위원장이 오더를 내리지 않으니 대의원들끼리 논의를 해 투표하는 좋은 현상이 생겼다. 이번에도 이 같은 현상을 좋은 관행으로 만들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오금모임은 5·4 전대를 앞두고 10여명으로 출발해 한 달도 안돼 59명으로 세를 불린 바 있어 이번 '시즌2'에도 얼마나 많은 지역위원장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기라운지

김동철, "광주 수소차 선도도시 준비 철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이 19일 윤장현 광주시장과 함께 한국 자동차산업 연구의 메카인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 김 의원과 윤 시장은 이날 연구소 현황 및 친환경차 개발현황과 전망에 대해 보고 받고, 충돌시험장·주행시험장 등을 직접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권문식 현대차 연구개발 총괄사장은 "현재 풀러그린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가 대세이지만, 2016년부터는 수소차의 시장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의 방향과 현대차의 준비상황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광주가 수소차 선도 도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미래 수소차 선도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과 준비상황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광주에 수소차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대차 또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 수소차 선도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광주에 친환경 수소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 기반을 중심으로 광주가 세계적인 친환경 수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현대차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광주문화경제특구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출마한 전병헌 의원은 19일 "광주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앞으로 설립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16년 유치를 추진할 빛가람혁신도시 모바일게임센터를 묶어 광주문화경제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날 광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 오월의 정신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통해 진정으로 아시아 한류 중심지 광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주 지역 문화 콘텐츠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광주문화경제특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오는 2월 광주 과거에 들어서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2016년 빛가람혁신도시에 유치를 추진하는 전남모바일게임센터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더불어 하나의 특구로 묶어낸다면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문화 진흥 및 판당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투자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병완, 미안마·라오스 방문 출국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19일 미안마와 라오스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5박7일간의 일정으로 이날 출국한 장 의원은 지난 17일 앞서 출국한 정의화 국회의장 일행과 만나 미안마와 라오스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접견하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정 의장과 함께 미안마에서 열린 세인 대통령, 쉐만 하원의장, 아웅산 수치 민족민주운동당 당수 등을 만나 경제 개발 분야 및 의회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또 라오스에서는 총발리 사야손 대통령, 파니 야투투 국회의장, 통상 탐마봉 총리 등 주요 정치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두언·권은희·김태흠 의원 등이 동행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고,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1호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편입생 모집

학부

1.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5. 1. 26(월) ~ 2. 2(월)
 ② 전형일 : 2015. 2. 4(수) 오전 10:00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4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4	
사범	유아교육과	3	1
예능	음악학과	6	2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1. 지원자격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0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00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